

북스

Books

독일인들은 왜 독재자에 열광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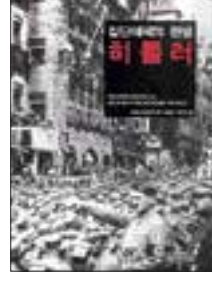


집단 애국의 탄생 히틀러

라파엘 켈리히만 지음 · 박정희 정치인 옮김

칸트, 피히테, 헤겔, 하이데거 등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들을 배출한 독일. 세계철학사에 있어서 독일 철학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류를 형성해 왔다. 철학의 나라라고 자부하며 합리적인 이성과 인문주의적 교양을 뽐냈던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1889~1945)와 나치즘이 출현했을까.

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히틀러를 선택했던 독일 국민의 심리와 당시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아울러 히틀러의 독일 정치계 입문부터 최후를 맞이까지 행보와 2차 세계 대전의 전개과정, 당시 독일과 유럽의 복잡했던 관계를 분석하며 히틀러와 독일 국민의 비극적인 애국심이 어떻게 종말로 치닫는지를 연대순으로 보여준다.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라파엘 켈리히만은 '집단애국의 탄생 히틀러'를 통해 독일국민의 맹목적인 애국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이 책은 '독일국민의 집단적 애국주의와 히틀러의 공포'라는 관점에서 히틀러의 독재를 살폈다. 단순히 히틀러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1920년대 말부터 악화된 경제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독일국민에게 히틀러는 일차리와 빵을 약속하며 법조인 등 사회 핵심부에 진출한 유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였다. 독일인구의 1%를 넘진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독일인 노벨상 수상자 중 4분의 1, 판·검사의 6%, 변호사의 15%, 의사의 7%, 언론인과 작가의 8%, 백화점 유통망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게 게르만 민족에게 급격히 보일 리 없었던 것.



1938년 9월 히틀러가 함부르크를 방문, 1만여명의 추종자들 앞에서 군사행동의 필요성과 전쟁에서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다.

히틀러는 이런 유대인을 독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연설과 선동을 통해 절망에 빠진 독일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국민이 히틀러가 뿌려놓은 애국이라는 멍에를 걸러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생각의나무·2만8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는 펜이고 펜이... 만화가들의 열정

만화가라는 직업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대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1세대 만화가들의 만화에 대한 열정과 만화보다 더 '만화적인' 사연들이 실려있다.

스포츠 신문에서 오랫동안 만화를 담당해온 장상웅이 김성환·고우영·이현세·방학기·허영만 등 한국을 대표하는 19명의 스타 만화가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나는 펜이고, 펜이 곧 나다'로 펴냈다.

책은 2004년에 나왔던 '한국 대표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의 개정판으로 출간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만화가 박인권, 김동화, 지현근씨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출간 이후 세상을 떠난 고우영, 박봉성에 관한 내용들이 수정·보완됐다. (크림스·1만9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생활속에서 만나는 과학의 모든 것

과학카페

KBS 과학 다큐멘터리

'마감 증후군'(Deadline Syndrome)이라는 게 있다. 내내 집중이 되지 않다가 마감에 임박해 글이 잘 써지거나 시험 전날 하는 공부의 속삭이 들어오는 현상이다. 화학 시절 '벼락치기'로 시험공부나 밀린 방학 숙제를 해본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 한번쯤 의문을 품어봤을 듯 싶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KBS과학다큐멘터리 '과학카페' 제작팀이 마감이 생명이라는 한 신문사로



출동했다. 마감 때 기자의 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 알아보는 위해서다. 먼저, 기자의 뇌에 호르몬과 뇌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달았다. 주목 대상은 스트레스의 추이를 알려주는 교감 신경계. 시간이 흐를수록 기자의 교감신경 활성도가 크게 올라갔다. 스트레스를 받아 평상시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뇌가 긴장해 깨어있다는 의미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을 자극해 비락치기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벼락치기 효과는 얼마나일까? 이번에는 시험이 끝난 지 며칠 뒤 중학교를 방문해 문제를 조금 바꾼 시험을 다시 보게 했다. 그 결과 벼락치기를 한 적이 하지 않은 쪽보다 점수가 더 떨어졌다. '과학카페'는 KBS 과학다큐멘터리 '과학카페' 제작팀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발로 쓴 고품격 과학 교양서다. TV에 방송된 프로 중에 시청자의 호응이 많았던 내용을 선별해 제1권으로 '인체와 건강'을 다뤘다. 책은 재미있다. 과학은 어렵거나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깨기에 충분하다. 인체의 신비를 흥미로운 실험과 국내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남자들이 예뻐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자의 가까워지면 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뇌의 신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술을 마시면 그녀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뇌에 흡수된 알코올이 보상회로를 자극해서다. 보상회로는 식욕, 성욕 등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해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람들이 기합을 넣는 이유는? 사람들이 벌떡피우는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 궁극하면 물어보시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활상산소, 암을 이기는 먹을거리, 로봇의사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가득하다. (예담·1만5천원)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새책

▲폴포트 평전=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대학살을 자행했던 독재자 폴 포트의 행진, 크메르루즈 지도부의 생존 인물들의 심층 인터뷰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프랑스·러시아·베트남 등의 기밀문서를 토대로 아시아의 역사를 살폈다. <실천문학사·2만3천900원>

▲비합리성의 심리학=영국의 심리학자 스튜어트 서덜랜드가 인간의 비합리적 판단, 선택, 행동들을 갖가지 심리 실험을 통해 명쾌하게 보여준다.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비합리성이 끼치는 피해, 비합리적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 등도 일러준다. <교양인·1만7천800원>

▲살인, 미스터리 그리고 결혼=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중단편선집이다. 1876년 발표됐지만 2001년에서야 알려진 표제작을 비롯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귀신 이야기' 등 5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문학수첩·1만1천원>

▲동아시아를 만든 열 가지 사건=150여 년간 동아시아 역사를 통해 한·중·일의 역사를 살핀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연재된 특집기사 '역사는 살아있다-동아시아의 150년' 시리즈를 묶었다. <창비·1만8천원>

▲직장상사 생존보고서=최병권 등 LG경제연구소 인사조직연구실 연구원들이 쓴 상사가 스스로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과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보고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실력과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는 상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개선 방법을 제시한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기암=광주 출신으로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중인 김경주의 두 번째 시집. '무엇의 문양' '풍선의 장례' '구멍' 등 42편이 수록됐다. 전체 3막으로 구성했으며 '연출의 번'과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구운몽' 등 희곡적 구성이 두드러진 작품들이 실렸다. <문학과학사·7천원>

▲50세, 나는 빛나는 삶을 살다=알프레드 히치콕, 코코 샤넬,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 50세 이후에도 끊임없는 창조력을 보여주며 인생의 최고기세를 누리 30명의 이야기.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뒤당이 이들의 열정적인 삶을 통해 나이 듦의 매력과 그 생활에 대해 예찬했다. <에코의 서재·1만2천500원>

▲신화=정당의 중앙당에서 13년을 근무한 황천우가 펴낸 정치소설. 가상의 정치적 인물의 삶에 최근 세간에 떠도는 수많은 의혹들을 접목시켜 정치체계의 편법과 권모술수, 목표를 향한 조작과 위선을 고발한다. <도서출판 우인·1만4천원>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 062)385-9994 H.P.011-622-6650

입대 (신축건물)

■ 1층: LG전자 판매점(11월중순 오픈)
 ■ 2층: 100평
 ■ 3층: 140평 (권장) 의원, 학원 등

입지장점
 1. 금호지구 - 풍림지구 - 순환도로 교차점
 2. 대로변, 우수한 노출성
 3. 금호아재, 풍암우리, 풍림지구 접근성 탁월
 4. 광주 최고수준 교통망
 5. 수려한 건물 외관
 6. 합리적인 입차 가격
 "싱가는 입지가 핵심(鍵)"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입대전문

토지매매
 ▶수원지구 333-1(별의별) 60㎡더 상임주택, 3만도로 주차장인원 720㎡ 3.3㎡당 600만원
 ▶수원지구 아파트 단지지역 정문 입구 상임용지 500㎡ ㎡당 210만
 ▶수원지구 단밀평형 170세대 정문앞 아주 지역지 330㎡ 3.3㎡당 450만
 ▶공산구 수원동 35㎡ 대면부지 1,782㎡ 4,231㎡ ㎡당 70만(분양가) 500㎡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운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 1,782㎡ 4,231㎡ ㎡당 70만(분양가) 있음 매가 4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시장, 인형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인과 피부과 아미후과 등 임대점장수 다함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마켓 임업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업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인 확정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①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물건	토지매매
▶정성 백양사입구 식당 옆 호텔대 2,264㎡ 2,958㎡ 매17억	▶전남 화순 출양면 읍동리 (대전, 임)76,003㎡ 매11억5천만 원관리 지역, 전원주택적합
▶보성읍포해수욕장 민비집 및 최고의 전원주택 비당 가전장,경관 최고의 자리.	▶장성군 삼산면 삼계리 (전,임) 관리 지역 2차선도로접 7,626㎡전망 좋음,중정대가매가4억5천만
▶대 882㎡ 건172㎡ 매가3억2천	▶담양 금성면 대목리 2차선도로 관리 지역 대 3,305㎡ 매가 2억4천만 (분할 매매가)
토지매매	
▶담양 대덕면 길정리 대전포항) 5,573㎡ 관리지역 차령천입기. 가든,질터,전원주택 적합 매가 1억 8천만	▶담양 금성면 대성리 관리,농림임 39,669㎡ 매가1억8천만
▶담양 수북면 대변리 참고부지10,925㎡ 2차선도로접 매가8억2천만	▶곡성 곡성읍 구원리 관리지역 9,917㎡ 매가 5억4천만 공장, 참고기타등도적합
▶전남 무안읍 송내리 주거지역 4차선접 1,474㎡ 매가3억2천만	▶화순읍,삼천리 담 4,245㎡ 2차선도로접 매가4억8천만
▶담양 풍산면 연동리 전1,676㎡ 농림지역,차량진입가능,주말농장등,소액투자적합 매가2억5천만	▶담양 대덕면 입석리 관리,농림임 55,537㎡ 매가5억
	상가등
	▶담양 금성 대곡리접종지5,057㎡ 2차선도로접매가7억1천만
	▶담양 고서 분향리 전2,710㎡ 2차선도로접,건축허가 개그린벨트 광주담 부근 매가4억5천만
	▶남구 월산동 지해동 지상3층 2차선도로접매가8억1천만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부근 4차선접 대181㎡ 3천26㎡ 매가2억5천만

※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원도매입처 최선으로 다해 구매드립니다.
 ※ 토지 투자물건 다량 보유!! ※ 24시간 전화상담 및 긴급 접수!!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용나무 레스토랑

추천입종: 패밀리레스토랑, 대청치킨프랜차이즈 최적합 매매가: 5억7천만원(용2억7천만포함), 현금매수액3억

상무지구 매물구함

건물·토지·상가 임대·점포매매